“나는 가전연” 불교식 MBTI에 2030 관심 ‘UP’

〈불교 에니어그램 ‘부처님 마음, 내 마음’〉

보급 한 달 이용자 통계 분석
2030세대가 전체 57% 차지해
남성보다 여성 이용자 압도적
전 연령서 ‘가전연’ 유형 1위
“템플스테이 콘텐츠 개발 추진”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 포교원(원장 선업 스님)이 선보인 불교 에니어그램이 2030세대의 또 다른 트렌드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성격유형 검사 링크가 공개된 지 채 한 달이 안 된 현재, 입소문을 타고 2030세대의 참여율이 급상승하는 등 젊은 불자들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 불교 에니어그램의 참여 연령 가운데 30대가 1위를, 40대에 이어 20대가 3위를 차지했고, 전체 비율의 절반 이상(57%)이 2030세대에 집중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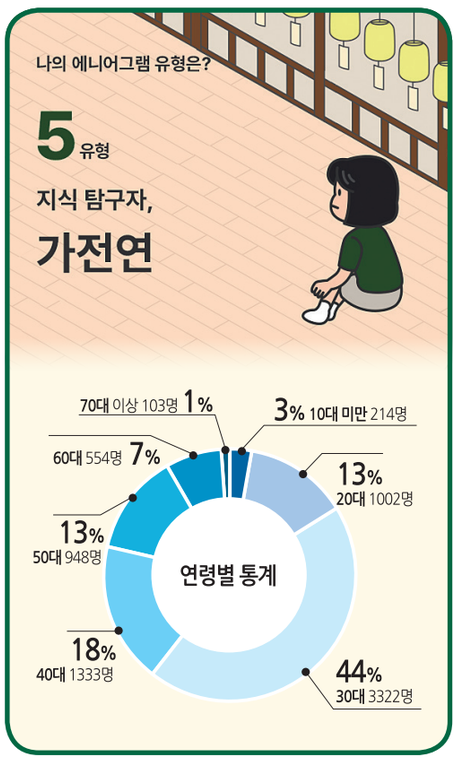
본지는 4월 2일부터 4월 23일까지 불교 에니어그램 ‘부처님 마음, 내 마음’ 성격유형 온라인 검사에 대한 연령·성별·날짜별 통계와 유형을 조계종 포교원을 통해 확인했다. 불교 에니어그램은 45개의 불교적인 질문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문항을 선택해 성향·성격을 9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검사다. 에니어그램은 MZ세대 사이에서 MBTI 열풍을 이은 심리검사로 불교의 진입장벽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총 참여자 7476명 중 30대는 3322명이다. 전체 참여자 중 44%의 비율로, 전 연령대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뒤를 이어 40대가 18%(1333명), 20대가 13%(1002명), 50대가 13%(948명), 60대가 7%(554명), 10대 미만이 3%(214명), 70대 이상이 1%(103명)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 현황을 성별로 살펴보면 불교 에니어그램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큰 관심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은 76%(5676명)인 반면 남성은 24%(1800명)에 그쳤다.

불교 에니어그램은 부처님 10대 제자를 대표 인물로 설정해 각 유형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검사 결과에는 각 유형이 성장을 위해 필요한 조언, 추천 신행, 부처님 말씀 등이 담겨 스스로 삶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 연령층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유형은 ‘5-지식 탐구자, 가전연’이다. 남자 608명, 여자 1760명 등 총 2368명이 이 유형에 해당했다. 다만 한 사람이 하나의 유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전적 특성 및 환경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복수 유형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가장 많은 비율이 나온 ‘가전연’ 유형은 지식 쌓는 것을 좋아하고 분석력과 통찰력이 뛰어나며, 객관적이고 방관자적인 태도를 유지한다고 알려졌다. 또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5유형에게 적합한 신행 방법은 ‘사경’이다. 한 글자, 한 획을 직접 쓰면서 공허함을 채워갈 수 있기 때문이다.

9번 유형인 ‘편안한 중재자 사리불(2251명)’과 6번 유형 ‘성실한 친구, 가섭(1705명)’이 근소한 차이로 각각 2, 3위를 기록했다. △‘3-성공을 부르는 달변가, 부루나(1692명)’ 유형 △‘2-사랑을 담은 봉사자, 아난(1263명)’ 유형 △‘7-호기심 가득한 소년, 라훌라(1154명)’ 유형 △‘1-몸소 실행하는 실천가, 우바리(1152명)’ 유형 △‘4-컬러를 입히는 멋쟁이, 목건련(861명)’ 유형 △‘8-힘을 중시하는 도전자, 수보리(811명)’ 유형 순으로 뒤를 이었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불교 에니어그램은 감정, 생각, 욕구를 바탕으로 성격유형을 나눠 불교적으로 활용하기 가장 적합하고, 심층 심리를 다루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에니어그램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아동용·청소년용 등 계층 따른 맞춤 설문지도 개발해 젊은 층 포교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며 “데이터 수집과 이를 통한 개선을 거친 후에는 템플스테이와 접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에니어그램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5계 실천하는 녹색불자 됩시다”

불교기후행동, 지구의날 맞아
녹색불자 실천 캠페인 입재식

제54회 지구의날을 맞아 사부대중이 과거 행한 환경파괴행동을 참회하고 부처님의 자비심을 등불 삼아 자연과 공존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했다.

불교기후행동(상임대표 일문 스님)은 4월 22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제3회 녹색불자 실천 캠페인 입재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입재식에서 환경5계를 실천하는 녹색불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 사부대중은 직접 자연을 그려 넣은 지구등을 들고 사회를 향해 자연보호의 메시지를 전하며 인사동을 행진했다. 이날 행사에는 총무원 사회부장 도심 스님, 불교기후행동 상임대표 일문 스님,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 조계사 부주지 탄보 스님, 심곡암 주지 원경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장, 주현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캠페인의 시작은 ‘지구등 그려넣기’ 체험 부스가 알렸다. 불교기후행동 활동가들은 직접 만든 지구등을 놓고 붓으로 오염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지구를 그려 넣었다. 활동가들이 그린 지구등이 하나둘 완성되자 지나가던 불자들이 조금씩 체험부스로 몰려들어 붓을 집었다.

한진숙 보살은 “인간의 자연파괴를 참회하는 마음으로 지구등에 그림을 그리고 ‘지구야 고맙다’는 메시지를 적었다”고 말했다.

불교기후행동을 격려하기 위해 조계사를 찾은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도 지구등 그려 넣기에 동참했다.

입재식 이후 사부대중들은 자신이 그려 넣은 지구등을 들고 조계사 일주문을 나서 인사동을 행진했다. 풍물패의 흥겨운 국악과 지구장엄등이 행렬에 앞장섰고 그 뒤를 따르는 사부대중들은 자연환경을 지키고 우리를 지키자는 메시지를 사회에 전했다.

주현우 대불련 회장은 “대학생불자들로 구성된 단체인 만큼 환경을 생각하고 지키는 것은 불자로서 당연한 행동”이라며 “오늘 같은 날 함께 지구등을 그려 넣고 녹색불자실천 발원을 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민우 기자

김포대 불교동아리 ‘메따’ 추가 창단

봉선사, 청년법회서 지원금 후원
교구 소속 말사들도 기금 전달해

올해에만 4개 대학에 5개 불교동아리 창단을 이끌며 대학생 전법에 매진하고 있는 봉선사가 김포대 불교동아리 창단이라는 결실을 더했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남양주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는 4월 20일 경내 큰법당 앞마당에서 ‘상월결사 청년대학생 연합법회’를 봉행하고, 최근에 새로 창단한 김포대 불교동아리를 소개했다.〈사진〉 빗방울이 떨어지는 날씨에도 법회에는 기존에 창단을 마친 경동대·서정대·경복대·신한대 불교동아리 회원들과 광동학원 산하학교 학생들, 수미산원정대 출신 불자들이 함께했다.

김포시 월곶면에 위치한 사립전문대학 김포대에는 4월 11일 ‘메타’라는 불교동아리가 탄생했다. 당초 불교동아리 창단 계획은 없었지만 일부 학생들이 사찰에서도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교수진에 알리면서 봉선사와의 교류가 시작됐다.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과 김포대 불교동아리 임원진.

김포대 불교동아리 지도법사로는 보원 스님이 임명됐다. 전주희 회장과 장형신 부회장, 박우송 총무도 임원진으로서 임명장을 받았다.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대학뿐만 아니라 중·고교, 직장인 청년회 등 10~30대 다양한 청년들이 봉선사와 함께하고 있다”며 “대학생청년 전법도량으로서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주희 김포대 불교동아리 회장은 “불교동아리 회장을 맡은 만큼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남양주=윤호섭 기자

난치병 어린이 쾌유 발원 108배

4월 24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주최
난치병어린이 치료비 모연행사 진행

“우리 다운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조계종과 수많은 불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와 가족을 대표해 발원문을 낭독한 한다운 군의 아버지 한상귀 씨는 울먹이면서 거듭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불교계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올해부터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한다운 군을 위해 치료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중증장애를 가진 몸으로 난치병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한상귀 씨에게 불교계의 지원은 큰 힘이 됐다.

이처럼 난치병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해 불교계가 마음을 모았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 이하 재단)은 4월 2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24회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모금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재단 이사장 진우 스님은 “최근 자비나눔 방문으로 병마를 이겨내는 천진불들을 만날 때마다 대견하기도 했고 감당해야 하는 짐이 너무 큰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라며 “난치병으로 힘들어하는 어린이 부처님들이 사부대중의 간절한 발원으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이후 난치병 어린이들의 쾌유와 자비나눔문화 확산을 발원하는 108배가 이어졌다. 500여 대중은 ‘나를 깨우는 108배’에 맞춰 정성스레 절을 했다. 제각기 속도는 달랐지만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한 마음은 똑같았다. 참가자들은 진심 어린 108배를 총 세 번 반복했고 이후 행사는 사홍서원과 기념촬영으로 마무리됐다.

이민우 기자

2568부산연등회보조금사업임

BUSAN YEON DEUNG HOE

부산연등회 www.bba48.or.kr

2568 부산연등회

개막점등식(소회일) 4월 26일(금) 송상현광장

부산연등회(대회일) 5월 11일(토)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

부산연등문화제 4월 26일(금)~5월 12일(일) 송상현광장

주최_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주관_ 2568부산연등회봉행위원회 문의_ 전화: 051)867-0501~3 전송: 051)867-0504 후원_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